

보도 일시	2022. 3. 13.(일) 11:00 3. 14.(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3. 11.(금) 16:00
담당 부서 <총괄>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만영 (063-238-2841)
		담당자	연구관 최용수 (063-238-2889)

전국 양봉농가 월동 꿀벌 피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

- 꿀벌응애류 · 말벌류 피해, 이상기상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최근 양봉농가의 월동 꿀벌 피해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월동벌 피해 민관 합동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9개 도 34개 시·군 99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 걸쳐 꿀벌 폐사가 발생했으며,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피해가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확한 전국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거의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고,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찰이 어려운 응애류의 발생을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까지 사양 꿀과 로열젤리 생산으로 적기 방제가 미흡해 월동 일벌 양성 시기에 응애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월동 꿀벌의 약군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 약군화(弱群化): 월동 봉군(벌무리)의 일벌구성이 정상보다 적은 수로 된 경우

말벌류 중 등검은말벌은 일벌 포획력이 탁월해 유인제 또는 유인 트랩으로 완전하게 방제하기 어려워 지난해 10월 늦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했다.

방제가 매우 어려운 기생성 응애류와 포식성 말벌류는 월동 봉군 양성 시기(8~9월)에 최대로 번식하는 생태 특성이 있다. 응애류는 발육 번데기에 기생하고, 말벌류는 벌통 출입구에서 일벌을 포획해 막대한 피해를 준다.

특히 지난해 9~10월에는 저온현상이 발생해 꿀벌의 발육이 원활하지 못했고, 11~12월에는 고온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하는 현상이 나타나 봉군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약화된 봉군으로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 화분 채집 등의 외부활동으로 체력이 소진됐고, 외부기온이 낮아지면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월동기간 일벌들은 공 모양으로 밀집되어 형태를 유지하는데, 강한 봉군들은 단단하게 밀집해 외부환경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약한 봉군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은 양봉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등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꿀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방역 대응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꿀벌 구제 약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조치했다.

* 경영 위기 준전업농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있는 경영체, 개인 20억 원 이내(고정 1%)

**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 입은 농축산업인, 농가당 1000만원 이내(연 2.5%)

*** 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 등: 총사업비 74억 원

농촌진흥청은 정확한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꿀벌응애 친환경 방제 기술과 무인기(드론) 이용 등 검은말벌 조기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월동 꿀벌 관리기술 자료 발간과 배포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응애 구제제 적정 사용요령 교육을 확대하고, 질병 조기 진단과 기생성 응애류의 최적 약제 선발을 강화한다.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로 안전성과 효능이 뛰어난 천연물 유래 응애 구제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만영 양봉생태과장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 상시화에 대비해 꿀벌 관리와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만영 (063-238-2841)
		담당자	연구관	최용수 (063-238-2889)
담당 부서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박홍식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김 성 (044-201-2335)
담당 부서 <협조>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윤순식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조윤상 (054-912-0743)

